

2011.04.11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4월 7일(목)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'제82차 국민경제 대책회의' 자료를 정리한 것임.

□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안정대책

1. 가격안정 대책 추진방향

- 서민생활과 밀접한 쌀 등 11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
 - ※ (11개 품목) 쌀, 배추, 마늘, 사과, 배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, 명태, 고등어, 오징어
- (단기 대응) 비축물량 및 저율관세 수입물량이 시장에 조기공급되도록 추천 및 판매방식을 개선

품 목	대 응 방 향
쌀	정부비축 물량의 단계적 방출 확대
배추, 마늘	정부비축·농협 계약재배 물량 방출 및 저가판매
사과, 배	농협 수급안정사업 재고물량 집중방출
돼지·닭고기, 계란	할당관세 물량이 조기에 시장 공급되도록 추천방식 개선
명태, 고등어, 오징어	수입·민간 저장물량의 판매경로 다양화(도매중심 → 소매 포함)

- (구조적 대응) '11.1월 발표한 「유통구조개선 대책」과 농협법 개정에 따른 경제사업 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
 - (관측) 기상변화에 따라 시세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 개발 및 관측속보 발행(1~3월 : 15회) 등을 통해 예측력과 활용을 제고
 - (계약재배) 가격변동성이 큰 채소류의 계약재배 규모를 확대('10년 : 생산량의 8% → '11년 : 15%)하고, 계약방식도 다양화
 - (직거래, 합리적 소비)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의 통합관문홈페이지 (나라장터)구축

- 스마트폰을 활용한 가격비교 및 분석정보 제공, 소비자단체와 캠페인 등을 통해 물가불안 심리에 효과적으로 대응
- (국내생산 기반확충) 재배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는 마늘, 배추 등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수확기계 보급, 종자개발 등 추진
- 판매기능 활성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 강화

2. 품목별 대책 주요 내용

- (쌀) 정부관리 쌀의 추가 방출을 통해 평년가격 수준으로 안정 도모
 - '10년산 보유곡 10만톤을 공매하고, '09년산도 단체급식업체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판매하여 유통질서 문란을 최소화할 계획
- (배추) 정부·농협 보유물량 방출 및 계약재배 확대
 - 정부보유 물량(수매 1,077톤, 수입 194톤)을 4월 중순까지 집중 방출
 - 농협보유 물량(266톤)을 4.10일까지 계통매장에서 할인판매
 - 농협의 봄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고('10년 7천톤 → '11년 19),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방출
 - 저온현상 등 이상기후에 대비, 현장 기술지도 강화(5월말까지 현장기술 지원단 구성·운영)
- (마늘) 햇마늘 출하 전까지 비축물량 집중 방출
 -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국산 및 수입 마늘 지속 판매
 - ※ 정부 보유량 : 5,972톤(국산 991, 수입 4,981)
 - ※ 국산마늘은 대형마트 등을 통해 저가판매(필요시 1,000톤 추가수매)
 - '11년도 할당관세 물량 조기 도입 및 김장철 가격안정을 위해 햇마늘 정부비축 추진(6천톤, 김장철 소비량의 20% 수준)
 -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재배면적 감소추세에 있는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중구 개량, 기계화, 관수시설 정비 등 중점 추진
- (과일: 사과·배) 농협 보유 물량 공급 및 대체소비 유도

- 농협 수급안정사업 잔여 보유물량(사과 7천톤, 배 8천톤)을 4월중 집중 공급
- 제철 과일인 딸기, 토마토 등 대체 소비 촉진

○ **(돼지고기: 삼겹살)** 할당관세 물량이 시장에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추천제도 대폭 개선

- 1차 할당관세물량(삼겹살 1만톤, 육가공원료용 5만톤)에 이어 추가 물량(삼겹살 5만톤)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추천대상 확대
-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할당관세 물량을 무제한 도입하고, 배정방식도 선착순 방식으로 개선
- 할당관세 물량의 시장 방출가격 점검을 강화하고, “후보돈” 선발 확대(2두 → 4~5두) 등 양돈산업 조기회복 노력 경주

○ **(닭고기)** 할당관세 물량 도입 및 출하조절 유도로 전년 수준 유지 노력

- 4~5월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물량(50천톤, 5천만마리 해당)을 도입하고, 선착순으로 배정하여 국내시장에 조기공급 유도
- 5월 이후는 가격추이를 보아 계열업체의 자율 수급조절 유도

○ **(계란)** 생산기간 연장 및 수입확대를 통한 공급확대

- 종계와 산란계의 생산기간 연장으로 병아리 및 계란 공급량 확대
- 산란용 병아리(1백만수) 및 계란분말(300톤) 할당관세 물량 조기도입
- 종계 확보를 위해 시장접근물량 증량(46만수 → 66) 조치(3.24)

○ **(수산물: 명태, 고등어, 오징어)** 할당관세 물량 공급 및 원양산 조기 도입

- 고등어는 6월까지 할당관세 물량을 무제한 선착순 방식으로 도입, 수협을 통해 할당관세 물량의 일부를 대형유통업체에 직공급(431톤)
- 오징어는 원양산 조기도입을 통해 4월중 시장 공급물량 확대(원양선사 협조)

□ 예외 곡물자원 개발·확보 전략

1. 예외 농업개발 활성화

○ 민간주도 개발의 한계 극복을 위해 **민간·공공 합동진출** 추진

- 진출 국가별로 **정부간 농업분야 협의체**를 구성, 토지 임차 협의 및 진출 애로사항 해결 등 지원
- 공적개발원조, 연관산업 동반 진출을 통해 민간·공공기관 합동 진출 효과 극대화
 - ※ 현지 우호 관계 형성, 개발여건 조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 제공
 - ※ 농장과 연계된 가공시설(식용유·식품공장), 유통시설(도매시장) 및 시설농업(비닐하우스) 등 **전·후방 연관산업 동반 진출**

○ 곡물 생산 확대·수출의 여력이 있는 국가 중 생산성, 물류환경 등 국가별 여건에 따라 진출방식을 차별화

- ※ **유통형 단독** : 생산기반이 완비되고 시장이 성숙한 나라
- ※ **先유통 後농장** : 생산여건이 좋으며 추가 개발이 가능한 나라
- ※ **先농장 後유통** : 농업환경은 좋으나 물류시설이 부족한 나라

○ (향후 계획)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정비, 지원체계 개편, 민간기업 지원 강화, ODA 연계 강화 등 추진

- **‘해외농업개발협력법’을 제정**, 농업자원개발 펀드 조성 등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기반 정비
- 기존 **해외농업개발 협력단**을 국가적 합동지원 체계로 확대 개편하고, 금융·인력 등 민간기업 지원 강화
 - 민·관 합동 해외농업개발 협력단에 수출입은행과 전경련을 참여시켜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지원 및 기업과의 연계 강화
 - 해외농업개발 용자 지원 조건을 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 수준으로 개선하고, ‘해외농업인턴제’ 및 ‘전문가 교육과정’ 확대

- ※ 연리 2%, 3년 거치 7년 상환 →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
- 해외진출 기업을 주축으로 '해외농업개발협회'를 설립하여 기업간 정보 교류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창구 마련
- 농업분야 ODA 지원 기관과 협조체계 강화

2. 안정적인 해외 곡물 조달시스템 구축

- (유통회사 설립)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민간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, **곡물 유통회사**를 설립하여 곡물 수입 추진
 - '11년 2/4분기 중 미국 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유통시설 확보
 - ※ 산지 엘리베이터 10기를 확보하고, 수출 엘리베이터 시설 지분참여를 통해 사용권 확보
 - ※ '11년 중 식용 콩·옥수수 각각 5만톤을 현지 구입하여 국내 조달
- (진출국가 확대) 브라질·연해주 등 곡물메이저의 영향력이 적은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 확대전략 수립
 - '11년 상반기 투자설명회를 개최, 대상지역 물색 및 타당성 조사
 - '11년 하반기 중 국가별로 종합상사, 해운사 및 실수요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, 진출전략 수립

3.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

- G20 서울회의 후속 식량안보 개발작업반과 G20 농업장관회의(6월)를 통한 국제공조 강화
 -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곡물의 생산·소비·재고 등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
 - 농업부문에 대한 지속 가능한 민간 투자 유도 및 개도국 농산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
 - 지역별로 역내 비축 제도 도입을 통한 국제 식량 비축 활성화
- "아세안+3 비상 쌀 비축제(APTERR :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)"를 통해 아세안+3국간 비상시 식량안보 도모

- 국가별 쌀 비축물량(총 787천톤, 우리나라 150천톤)을 사전에 약정·비축하고 비상시 약정 물량 판매·장기차관제공·무상지원
- USDA, FAPRI(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) 등과 공동연구로 **품목별 국제 수급·가격 추정 시스템** 구축('12년 완료)
 - 국제곡물관측 모형을 통한 국내 과급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
 - 국내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장상황에 체계적인 대응 유도